# PACKAGING CHINA '99를 다녀와서

**김영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부회장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이 넓은 대륙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세계인구의 1/4이나 되는 12억명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에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나라이다.

또한 각종 전문전시회가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곳이 중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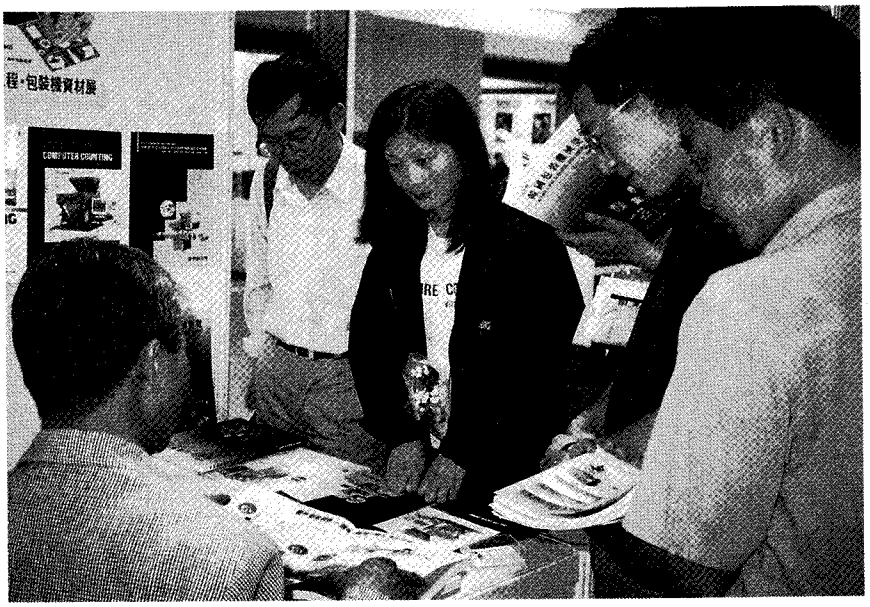
특히 개방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 같다.

포장기자재 전시회로서는 가장 큰 규모와 체계적인 운영을 자랑하는 PACKAGING CHINA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각종 포장기자재가 골고루 출품된 알토란같은 국제전시회였다.

지난 98년 9월 광조우에서 개최되었던 PACKAGING CHINA가 올해에는 지난 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중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며 상업도시인 상하이에서 다섯번째로 그 막을 올렸다.

중국에는 여러 개의 포장기자재전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조직적이고 알찬 전시회로 판단되어 우리 한국포장기계협회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 *패키징차이나를 참관한 한국포장기계협회 일행이 전시장 앞에서 기념촬영에 임했다.*



◀ 이번 패키징차이나는 활발한 상담으로 참가업체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주었다.

공식 후원하고 세계적인 전시회사인 MILLER FREEMAN이 주최하였으며 모두 7,000㎡의 전시규모에 한국을 비롯 중국, 핀란드, 프랑스, 홍콩,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싱가포르, 대만, 영국, 미국 등 12개국 105개부스 140개사가 참가하여 행사기간 중 8,000여 방문객에게 신제품 및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신현재)에서 PACKAGING CHINA 99를 공식 후원하여 (주)화성기계, (주)삼각기계, (주)한보화학, 타워인더스트리, 두일R · S, 한얼기계, (주)양지 및 한국포장기계협회가 모두 9부스에 각종 포장기계와 관련자료를 선보였으며, (주)세종기계, 동원기계, (주)세진테크, (주)한국크리에타 등이 카탈로그 전시를 통하여 한국의 포장기술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주관사인 MILLER FREEMAN은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인 비즈니스 채널을 제공하기 위하여 참가업체 제품 사전홍보 작업과 ANHUL 등 7개의 주요 포장관련그룹 방문단과 참가업체들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참가업체의 전시회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바이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특히 한국포장기계협회는 COEX와 함께 23명의 참관단을 이번 전시회에 파견하여 각종 포장기자재 관련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참가업체들로부터 많은 계약 상담과 OFFER 요구가 있었다.

이 전시회의 방문객들은 포장기자재 관련 전문가 8,000여명이 방문하여 상호 교환된 정보를 통해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PACKAGING CHINA 2000 행사는 내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에서 식품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되어 각종 포장기계 및 포장설비, 포장재 및 기타 원부자재에 관한 폭넓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ko